

'25. 4. 18(금)

지역별 테러 동향

Weekly Terrorism Trends (No. 448)

유럽

○ 튀르키예, 올해 6월까지 PKK 무장해제 목표

- 4.13 튀르키예는 투옥된 PKK 우두머리 「압둘라 오잘란」과의 협상을 통해 PKK의 해체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으며, 올해 6월까지 '테러 없는 튀르키예' 계획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발표

○ 독일, 잇따른 묻지마 범행으로 치안 불안 가중

- 4.15 언론은 베를린 지하철에서 시리아 출신 남성이 20대 남성을 칼로 살해하는 등 최근 △다중이용시설 차량 돌진 △유명 관광지 內 해로운 가스를 살포하는 묻지마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
※ 다만, 당국은 현재까지 테러나 극단주의 이념에 의한 것이라는 증거는 찾지 못했다고 부언

○ 프랑스, AI 기술을 활용한 테러 대응 방안 논의

- 4.14 언론은 프랑스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테러 대응'을 주제로 상원의원·AI 기술자·극단주의 대응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국제회의가 개최되었으며, AI 기술을 활용하여 국내외 안보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보도
※ 회의 참석자들은 진화하는 테러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동전략 개발을 목표로 했다고 부언

미주

○ 美,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관저 방화범 체포

- 4.14 언론은 2028년 美대선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조쉬 셔피로」 펜실베이니아 주지사 관저에 방화사건이 발생했으며, 경찰이 38세 남성을 용의자로 체포해 살인미수·테러·방화미수 등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고 보도

○ 美, 이민자 SNS 검사 시작...표현 자유 침해 우려

- 4.10 美는 “반유대주의 테러 조직·활동을 지지, 옹호, 홍보하는 SNS 콘텐츠를 이민 심사에서 부정적 요소로 간주할 것”이라며 영주권자와 외국인 유학생, 반유대주의 활동 교육 기관에 소속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보도

아 테

○ 韓, ‘흥기소지죄’ 시행 첫날 회칼 꺼내든 중국인 검거

- 4.10 언론은 공공장소 흥기소지죄 시행 첫날 서울 도심에서 행인을 향해 회칼을 빼든 50대 중국인이 검거됐다고 보도하며 同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흥기를 소지하고 드러내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보도

※ '23년 서울 신림역, 분당 서현역 흥기난동 살인 발생으로 형법에 공공장소 흥기 소지죄 신설이 추진됐고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 이달 8일부터 시행중이라고 부언

○ 파키스탄, 美 의회 대표단과 글로벌 테러에 맞서 강력한 국제 협력 촉구

- 4.13 외신은 「모신 나크비」 파키스탄 내무부 장관이 “테러와 전 세계를 잇는 장벽”으로써 자국이 역할을 하고 있으며, 테러는 전 세계적인 도전으로 국제사회의 파키스탄에 전폭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을 강조했다고 보도

※ 파키스탄 장관은 양국간 정보 공유와 첨단 대테러 기술에 대한 접근을 촉구했으며, 아프간과의 국경지역에서 무장 폭력이 급증하는 가운데 6월 대테러 대화 개최 예정

○ 韓, 정치인 등 살인예고 글...올해 235건으로 폭증

- 4.14 언론은 정치인·판사 등을 상대로 살인을 예고한 온라인 게시글이 지난 1월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235건으로 집계됐으며, 석 달 만에 지난해 1년간 발생한 살인예고 글(108건)의 2배를 넘어섰다고 보도

※ 언론은 올해는 특히 탄핵 찬성·반대로 갈등이 커진 상황에서 대선까지 치러지면서 이러한 협박 글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고 부언

미국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 '13. 4. 15 美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서 두개의 폭탄이 180m 간격을 두고 연달아 폭발하는 테러가 발생, 3명이 사망하고 260여명 부상

* 결승점 부근에서 우승자가 결승점 통과후 약 2시간 후 발생



-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통해 러시아 체첸 이민자 가정 출신인 「타메를란 차르나예프」(26세)와 「조하르 차르나예프」(19세) 형제를 용의자로 특정, 동생 「조하르」를 검거(「타메를란」은 체포과정에서 사망)
 - 이들은 테러에 '압력술 급조폭발물(IED)'을 사용하였으며, 특히 살상력 극대화를 위해 압력술 안에 쇠구슬·못·금속조각 등을 넣어 제작
- 한편, 범인 「조하르」는 '15년 1심에서 사형 선고 후 '20년 종신형으로 감형되었으나, '22.3월 연방대법원에서 최종 사형 선고

테러 상식

Weekly Terrorism Trends

< 급조폭발물 >

- (정의) 급조폭발물(IED / Improvised Explosive Device)는 전통적인 군용 폭발물이 아닌, 민간용 물품과 재료를 활용하여 즉석에서 제작된 비정규 폭발 장치
- (구성) 일반적으로 기폭장치, 폭약, 외피(용기), 그리고 트리거 시스템(원격, 압력, 타이머 등)으로 구성
- (원리) 기본적으로 폭약에 에너지를 가해 폭발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일반적인 군용 폭탄과는 달리 보다 단순하면서도 다양한 트리거 방식을 사용 할 수 있는 점이 특징임
- (압력술 폭탄) 구성은 압력술 안에 기폭제 및 장약과 함께 살상력 극대화를 위해 쇠구슬·못·나사·금속류를 넣고 외부에 타이머를 부착

